

# 平壤 土城里 출토 陶製佛像范과 高句麗 佛教彫刻

최성은

## I. 머리말

## II. 고구려 초기불교의 對 남북조 관계

## III. 토성리 출토 불상范의 유형과 양식

## IV. 토성리 출토 불상范을 통해본 고구려 불교조각

## V. 맺음말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의 佛像」(2010),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2011), 「프리미미술관 삼국시대 금동광배에 대한 고찰」(2012),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2013)

# 平壤 土城里출토 陶製佛像范과 高句麗 佛教彫刻\*

崔聖銀

## I. 머리말

고구려 불교조각은 오늘날 전하는 작품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제작시기도 6세기에 편중되어 있어 백제나 신라의 불교조각에 비해서 연구상황이 열악하다. 소수림왕 2년(372)에 국가적으로 불교가 공인되어 거의 3세기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자취를 남겼던 고구려 불교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천한 불교조각 연구는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기 전에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 불상범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의 기존 불교문화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검토하여 그 동안 간과되었던 부분을 밝혀보고자 한다.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 불상범[范]은 일제강점기 때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동(평양시 토성리)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소조불상을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의 파편이다.<sup>1</sup> 모두 3점의 불상범 파편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평양중앙력사박물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고구려에서 소조불상이 유행하여 대량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로 소개되어 왔다.<sup>2</sup> 이 불상범은 현재 몸체의 일부만 남아있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나 고구려 여래좌상의 귀한 예일 뿐 아니라, 고구려 불교 초기의 여래좌상 도상과 양식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도제 불상범이 출토된 평양 토성리 일대의 지리적 성격, 4-5세기에 있었던 남북조와의 교류관계 등을 살펴 제작배경을 추정해 보고 남북조 불교조각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도제 불상범의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에서 불교 공인 이래 예배되어오고 있었던 불상의 모습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추하면서 그것이 한국고대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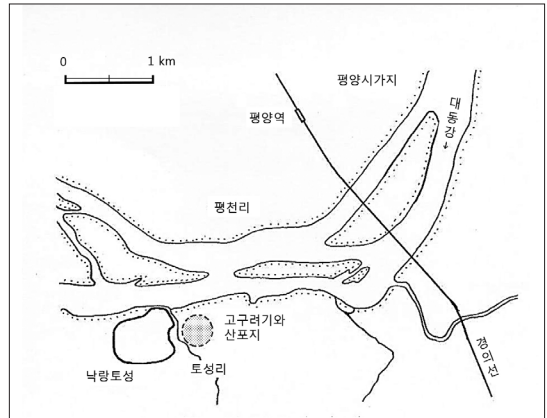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13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221).

<sup>1</sup>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奈良:養徳社, 1947), 圖版 57.

<sup>2</sup> 國立中央博物館, 『三國時代佛教彫刻』(國立中央博物館, 1990); 金理那,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藝耕, 1996) pp. 106-107; 崔聖銀,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불상』(동북아역사재단, 2007), pp. 61-63; 梁銀景, 「고구려 소조불상과 중국 소조불상과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4(2009), pp. 307-308 및 pp. 321-326 참조.

## II. 고구려 초기불교의 對남북조 관계

도제 불상범이 출토된 평양 토성리는 대동강 하류 南岸의 樂浪土城의 동쪽에 위치하며 현재의 지명은 평양시 낙랑구역 토성동이다.<sup>3</sup> 불상범이 출토된 지명에 대해서는 토성리, 梧野里, 城貞相 등, 보고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sup>4</sup>, 기본적으로 이 일대는 낙랑군의 治所가 있었던 낙랑토성의 동쪽 일대를 가리킨다 도 1. 낙랑토성 부근에는 천여 기의 낙랑시대 고분이 산재해있고 낙랑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sup>5</sup>, 여기서 동쪽으로 인접한 일대는 평양지역에서 가장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고구려 기와의 산포지로서 이 일대에서 출토된 고식의 輻線蓮華紋 와당은 集安의 太王陵, 千秋塚, 將軍塚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동일한 접합기법과 문양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長壽王의 평양 천도(427년) 이전인 4세기말에서 5세기초로 편년되고 있다 도 2.<sup>6</sup>



도 1. 평양 토성리 지도(谷豊信, 1990, 『平壤土城里發見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에 수록된 지도를 한글로 수정)

3 본고에서는 과거의 지명인 토성리로 부르도록 하겠다.

4 토성리 불상범의 출토지에 대해 梅原末治는 ‘토성리’, 小泉顯夫는 ‘梧野里’, 久野健는 ‘城貞相’, 『조선유적유물도감』에는 ‘貞栢’,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유물설명서에는 ‘토성리’로 적혀 있다. 梅原末治·藤田亮策, 앞의 책(1947), p. 32;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東京:六興出版, 1986), p. 338; 久野健, 『平壤博物館の佛像』, 『MUSEUM』 490(1992), p. 6 및 p. 5 圖5의 사진설명;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4 권—고구려편 2』(민족문화, 1993) p. 265 圖455의 해설; 梁銀景, 『북한의 불교사원지 출토 고구려, 발해 불상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1(2008), p. 191 참조.

5 낙랑토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동제품과 옥제품, 封泥, 陶器, 기와 등이 출토하였는데, 동제품이나 동전, 동탁을 주조하는 鑄型이 함께 발견되어 漢族의 물질문화가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낙랑토성의 조사와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原田淑人·高橋勇·駒井和愛, 『樂浪土城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京城:朝鮮總督府, 1938), pp. 103-115;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東京:岩波書店, 1941), p. 10; 국립중앙박물관, 『樂浪』(술, 2001), pp. 20-35.

6 關野貞은 “高句麗 最古式瓦가 樂浪郡治址인 土城의 동쪽 火藥庫 부근까지 풍부하게 발견되었으며 발에는 흙보다 瓦片이 많다”고 적고 있다. 關野貞, 『朝鮮古蹟圖譜』 2 解説篇(京城:朝鮮總督府, 1915); 關野貞, 『高句麗の平壤城と長安城について』, 『史學雜誌』(1928), pp. 1-39(同著, 『朝鮮の建築と藝術』(東京:岩波書店, 1941)에 재수록); 朝鮮總督府編,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上(東京:大塚巧藝社, 1929), p. 21 도판 no. 46-51; 田村晃一, 『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靑山史學』 8(1984), pp. 205-225; 谷豊信, 『平壤土城里發見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12(1990), pp. 47-82; 조지현, 『平壤 土城里 출토 高句麗 古式 輻線蓮華文 와당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 100; 주홍규,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2014), p. 87 그림 4의 9, 10 및 p. 97 참조. 최근의 연구에서 주홍규는 집안 太王陵, 千秋塚, 將軍塚 출토의 복선연화문 수막새에서 와당의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하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접합기법과 동일한 제작기법이 傳 토성리 출토



도 2-1. 幅線蓮華文 瓦當, 고구려 4세기말~5세기초, 평양 토성리 출토  
(關野貞, 『高句麗時代之遺蹟』 圖 89)



도 2-2. 복선연화문 와당, 고구려 4세기말~5세기초, 奈良 天理大學  
天理參考館(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 II, p. 279)



도 3. '寺'字 銘 인각문 평와, 고구려, 평양 土城里출토  
(『朝鮮古蹟圖譜』, 제2권, 圖 383)

고구려에서 기와가 사용된 건물이라면 그 성격이 佛寺, 神廟, 王宮 정도로 제한될 것이므로<sup>7</sup> 평양 천도 이전에 토성리에 세워졌던 瓦葺 건물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성리에서는 불상범 뿐 아니라, '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印刻文 平瓦片이 발견됨으로써 도 3<sup>8</sup>이 일대에 사찰이 경영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sup>9</sup>

토성리 출토 복선연화문 와당의 편년이 4세기말까지 올라가고, 당시 기와 건물은 규모가 있는 중요한 건물들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 시기 고구려 평양

복선연화문 수막새에서도 발견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지현은 토성리 출토 복선연화문 와당의 형식분석을 통해 연꽃봉오리의 형태가 杏仁形으로 융기되었고, 2층의 권선, 2줄 1조의 복선, 자방의 중앙에 연주문이 1개 배치된 점 등에서 집안 태왕릉, 천주총, 장군총출토 복선연화문 와당의 속성과 일치하므로 427년 이전(4세기 4/4분기에서 5세기 1/4분기)으로 편년될 수 있다고 보았다.

<sup>7</sup> 『舊唐書』『東夷傳』高(句)麗條에는 “고구려인의 주거는 반드시 산골짜기에 있고 모두 역새풀로 지붕을 덮는다, 다만 佛寺, 神廟, 王室, 宮府의 건물은 기와를 쓰고 있다(基所居必依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神廟及王室宮府乃用瓦)”고 기록하고 있다.

<sup>8</sup> 關野貞編, 『朝鮮古蹟圖譜』 제 2권(京城:朝鮮總督府, 1927), p. 103의 圖版 383

<sup>9</sup> 田村晃一, 「高句麗の寺院址に関する若干の考察」, 『佐久間重男博士退休記念中國史陶磁史論集』(東京:燎原, 1983)(同著,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東京:同成社, 2001)에 재수록), p. 597; 아즈마 우시오(東潮)·다나카 도시야키(田中俊明) 著, 박천수·이근우 옮김,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동북아역사재단, 2008), p. 467; 다나카 도시야키(田中俊明), 「고구려 사원의 조사와 현상」, 『天台學研究』 9(2006), pp. 96-97.



지역의 정치적인 입지와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에 故國原王 4년(334) 평양성을 증축하고 그 13년(343)에는 왕이 평양 목덕산의 東黃城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당시에 도 평양지역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평양지역을 놓고 백제와의 영토 분쟁이 그치지 않아서, 고국원왕 41년(371)에는 평양성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왕이 전사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小獸林王 7년(377)에도 평양성이 재차 백제의 침공을 받는 등, 백제의 북진 압박은 심했다.<sup>10</sup> 그러나 廣開土王의 즉위년(391)부터는 백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영락 6년(396)에는 백제를 親征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sup>11</sup> 그 중도인 영락 3년(393)에 광개토왕은 평양에 九寺를 세우고 백제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게 된 평양 건설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sup>12</sup>

이와같은 당시 평양지역의 상황이나 출토된 기와의 편년을 고려하여 토성리에 존재하였을 사찰이 광개토왕 영락 3년(393)에 평양에 세워진 ‘九寺’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田村晃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sup>13</sup> 토성리에서는 소조 불상범 외에도 연화문 수막새 와당, 귀면와, 연적 등이 발견되었는데, 출토된 기와들은 토성리의 사찰이 4세기 말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sup>14</sup> 아울러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539년경)의 광배명문에 보이는 “樂良東寺”<sup>15</sup>가 ‘평양’의 東寺가 아니라<sup>16</sup> 낙랑토성의 동쪽, 바로 토성리에 있던 사찰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역시 田村晃一에 의해 제기되었는데,<sup>17</sup> 토성리가 지리적으로 대동강 하류를 끼고 있어 水運이 용이하고 일찍부터 경제적,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낙랑의 故地에 인접한 지역이며 사찰이 경영되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광개토왕이 九寺를 세워 평양성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4세기말의 고구려 불교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평양지역을 비롯한 고구려의 중앙지역에서 형성된 불교문

10 『三國史記』 권 제18 「高句麗本紀」 제6 故國原王.

11 한국고대사학회연구회 편, 『광개토왕비(노태돈 역)』,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고구려·백제·낙랑 편)』(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 18.

12 “二年秋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創九寺於平壤”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2년. 여기에 대해서는 申東河,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 『韓國史論』 19(1988), pp. 3-29;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2007), pp. 3-4. 임기환은 광개토왕이 평양에 9개에 사찰을 창건한 것은 평양천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당시 평양지역에는 국내성으로부터 귀족세력의 이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3 田村晃一, 앞의 논문(1983), pp. 579-603; 谷豊信, 앞의 논문(1990), p. 66 참조.

14 『高句麗時代之遺蹟』 圖版上 p. 33 no.133, p. 34 no.137, p. 39 no.170, p. 59 no.310, p. 60 no. 312, no.313, p. 71 no.397 참조.

15 「延嘉七年歲在己未 高麗國樂良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口人 造賢劫千佛流布第廿九回現 義佛比丘口口供養」,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연가칠년명 금동광배」(서영대 역),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 126-128.

16 「樂良東寺」가 ‘平壤에 있는 東寺’라는 해석은 黃壽永, 『韓國金石遺文』(일지사, 1976), p. 236 참조.

17 일반적으로 洛良東寺는 ‘平壤’의 東寺로 이해되어 왔으나 낙랑토성의 동쪽에 절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낙랑토성지 동쪽의 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토성리에서 발견된 ‘樂’의 명문 새겨진 印刻瓦(東京國立博物館)를 예로 들면서 사찰명이 ‘樂浪東寺’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田村晃一, 앞의 논문(1983), pp. 597-598; 吉井秀夫, 「日本 西日本地域 博物館에 소장된 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2001), p. 528.

화의 성격과 그 형성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평양지역에는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한 뒤에도 잔류하던 漢族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륙의 남조와 꾸준히 문화적 교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양 토성리에서 멀리 않은 평양역 구내의 고분에서 東晉 永和 9년(353)의 연호가 새겨진 塼이 발견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sup>18</sup> 평양일대에 거주하던 漢族들에게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중국의 五胡보다 한족 왕조였던 강남 東晉의 문화에 傾倒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고구려 역시 정치적으로 긴박하게 대치되어 있던 오호십육국 못지않게 남조의 성숙하고 세련된 한족 문화에 흥미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와 동진과의 기록상 공식적인 교류는 비록 3회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sup>19</sup> 집안 국내성지[城里 人民浴址]에서 東晉 太寧 4년(326)명 卷雲文 와당이 발견된 것은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sup>20</sup>

특히 남조로부터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받은 영향은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고구려에 불교가 공전되기 이전인 366년에 입적한 동진의 고승 支遁(道林, 314-366년)이 고구려 도인[高麗道人]에게 서신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sup>21</sup> 여기서 ‘도인’이라는 칭호는 승려를 가리키며 남조에서 널리 쓰였던 표현이어서 ‘고구려 도인’은 불교공전 이전에 동진에서 활약한 고구려 승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따라서 북중국 前秦의 왕 부견이 승려 順道와 불상, 經文을 보내와 불교가 고구려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소수림왕 2년(372)<sup>23</sup> 이전부터 남조불교계와 고구려 사이의 불교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진시대는 남조 귀족불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로 지둔, 道潛(286-374년), 慧遠(334-416년) 등의 활약으로 강남교학의 수준이 격상되어, 이후 宋, 南齊, 梁代에 지속적으로 불교가 남조에서 크게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sup>24</sup> 고구려에 끼친 남조 불교미술의 영향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남조에서 조성된 유명한 불상들<sup>25</sup>에

18 榎本社人・野守健,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永和九年に銘塼出土古墳調査報告』(京城:朝鮮總督府, 1933), p. 6 (銘文) 및 圖版4 no.2; 谷豐信, 앞의 논문(1990), p. 67.

19 『晉書』帝紀 권 7, 권 10; 辛鍾遠, 앞의 책(1992), p. 182.

20 이것은 太寧 3년의 착오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太寧四年太歲在口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 李殿福 著・崔茂藏 譯, 『集安高句麗墓研究』, 『高句麗渤海文化』(集文堂, 1982), p. 87;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평양: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p. 95; 辛鍾遠, 『6세기 新羅佛敎의 南朝의 性格』, 『新羅初期佛敎史研究』(民族社, 1992), p. 182;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주류성출판사, 2006), p. 58.

21 이 서신에서 支遁은 竺法深의 높은 덕과 불교 弘通의 공적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이미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梁高僧傳』 권4 『竺潛 法深』; 『海東高僧傳』 권1 『流通』 1 亡名; 辛鍾遠, 『6세기 新羅佛敎의 南朝의 性格』, 『新羅初期佛敎史研究』(民族社, 1992), pp. 182-183; 金相鉉, 『中國文獻所載 高句麗 佛敎史 記錄의 檢討』,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고구려연구재단, 2005), pp. 74-76.

22 辛鍾遠, 앞의 책(1992), p.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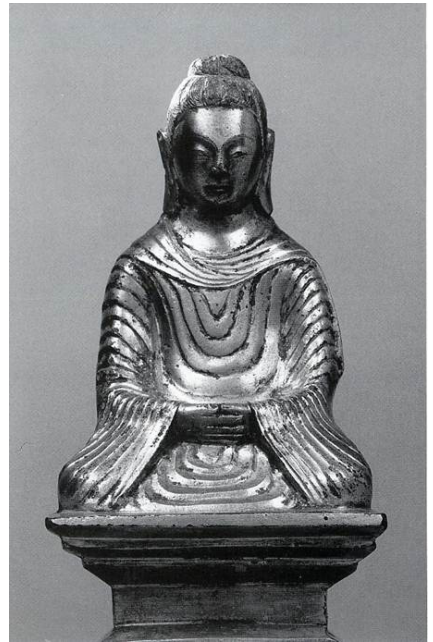
23 『三國史記』 권 제18 『高句麗本紀』 제6 小獸林王 2년, 4년.

24 鎌田武雄, 『中國佛敎史』(東京:岩波書店, 1978), pp. 67-80.

25 南朝에서 조성된 유명한 불상들은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다. 東晉 寧康 3년(375)의 襄陽 檀溪寺 장육금상(『高僧傳』 권 5), 東晉 太元 2년에 조성된 紹靈寺 장육금상(『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中 第10) 東晉末 建康 瓦官寺의 장육금상(『高僧傳』 권 13), 宋 元嘉 14년에 출현한 建康 瓦官寺의 2척 금상(『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中 第20)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 정보가 외교사절이나 승려, 상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존하는 5세기 전반의 남조 불상인 宋 元嘉 14년(437)명 금동여래좌상과 유사한 불상들 도 4 이 이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고구려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쪽의 오호십육국은 지리적으로 고구려에 연해 있어 잦은 분쟁과 함께 정치적·경제적인 접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불교문화가 고구려로 전래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진의 왕 부견이 襄陽 檀溪寺의 道安(312-385년)에게 금불상과 미륵상, 자수불상 등, 여러 불상들을 보냈다는 기록을 보아<sup>26</sup> 그가 고구려에도 이와같은 불상들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道安은 전란 중에서도 수천의 僧徒를 지도하며 佛典의 교정과 역주, 경전목록의 편찬, 儀軌의 제정, 白蓮社 결사 등, 중국불교의 기초를 구축하여 一世의 師表로 존송을 받았던 고승으로 전진의 건원 15년(379)에 부견을 따라 장안으로 옮겨 활약하였는데,<sup>27</sup> 그의 미륵신앙은 평양지역 불교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4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幽州刺史 鎮의 무덤인 덕흥리고분(408년)<sup>28</sup>의 묵서명에 보이는 ‘釋伽文佛’이라는 석가불의 칭호가 竺法護(231-308?)가 역출한 『미륵하생경』에 등장하였던 칭호라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sup>29</sup> 또한 동진의 지둔이 축법호 등의 역경을 높이 평가하여 그



도 4. 금동여래좌상, 宋 元嘉 14년(437), 東京 永青文庫 소장  
(東京國立博物館, 『金銅佛 中國・朝鮮・日本』, p. 12 圖 7)

26 "符堅遣使送外國金箔倚像高七尺 又金坐像 結珠彌勒像 金縷繡像 織成像各一張每講會法聚輒羅列尊像 布置幢幡...(후략)", 慧皎撰『高僧傳』卷5『釋道安傳』, 『大正新修大藏經』50卷 史傳部 2, 352b; 『한글대장경 高僧傳 外』(동국역경원, 2001), p. 151.

27 道安은 열렬한 미륵신앙자로서 미륵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도솔천왕생을 발원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塚本善隆, 『中國佛教思想の道安』, 『中國佛教通史』(東京:春秋社, 1979), pp. 558-561; 鎌田武雄, 앞의 책(1978), pp. 50-54; 權寄棕, 『중국불교 교단의 수립자, 道安 - 불교인물사상사』, 『佛教思想』10(1984), pp. 66-71 참조.

28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大安 德興里古墳의 墓主 幽州刺史 鎮이 ‘釋伽文佛’의 제자라고 소개된 것은 그가 활동했던 4세기 후반 평양지역의 불교를 이해하는 참고가 된다. 김용남, 『새로 알려진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무덤에 대하여』, 『력사과학』3(1979); 공석구, 『덕흥리 벽화고분(德興里 壁畫古墳)의 주인공(主人公)과 그 성격(性格)』, 『百濟研究』21(1990); 文明大, 『덕흥리 고구려 고분벽화와 불교의식도(淨土往生七寶儀式圖)의 도상의미와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 『講座美術史』41(2013), pp. 213-243; 안휘준, 『한국 고분벽화 연구』(사회평론, 2013), pp. 33-41 참조.

29 ‘釋伽文佛’이라는 칭호는 『彌勒下生經』보다 일찍 번역되었으나 역자를 알 수 없는 『彌勒來時經』과 이와 동본이라고 생각되는 『彌勒當來生經』 등에서 보이며, 『미륵하생경』의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增一阿含經』 권 48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근래 『미륵하생경』의 번역이 西秦(385-431)에서 이루어졌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어도 西秦末에서 東晉初期에는 ‘釋伽文佛’이라는 호칭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大西修也, 『釋伽文佛資料考』, 『佛教藝術』187(1989), pp. 61-74 참조.



도 5. 龍神塚 전실 서벽감의 여래상, 고구려 5세기 전반, 평남 용강.

상찬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기록을 보면,<sup>30</sup> 비단 『미륵하생경』이 아니더라도 북중국에서 역출된 경전들이 남조에까지 널리 유포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sup>31</sup> 전진을 비롯한 오호십육국의 교학과 신앙이 고구려 불교계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 공전 초기의 평양지역 불상은 전하지 않으나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龍神塚 前室 서벽 감실의 인물상이 ‘불상’일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sup>32</sup> 이 상의 뒷벽에는 ‘王’자 流雲文이 배경의 揮場장식으로 사용되었고<sup>33</sup> 袈裟와 같은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으며 등 뒤에는

미륵보살의 권좌로 표현되는 역삼각형의 등받이가 표현되어있다 도 5. 두 손은 위로 올려 轉法輪印을 결한 것으로 보이고, 平床처럼 묘사된 방형대좌 아래로 연화좌가 받쳐져 있으며, 감실 외벽의 인물상들이 합장을 하거나 서벽 감실을 향해 공양물을 바치는 모습에서 볼 때,<sup>34</sup> 이 상은 반대편 동쪽 감실에 그려진 묘주가 생전에 예배하였던 불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만약 그렇다면 이 상은 평양지역에 전하는 가장 이른 불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집안의 장천 1호분의 「벽화에불도」 여래상 도 6 과 함께 5세기 불교미술의 매우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

30 于法蘭과 竺法護의 역경을 높이 평가한 支遁은 스스로 그들의 상찬을 작성하여 보냈다. 塚本善隆, 「竺法護の大翻譯事業と宣教」, 『中國佛教通史』(東京:春秋社, 1979), p. 198 참조.

31 또한 미륵을 ‘慈氏’로 부르는 칭호 역시 미륵하생경에서 보이고 있는데 건흥 5년명 금동광배 명문에서 ‘자씨’라는 칭호가 보이는 점이 지적되었다. 大西修也, 앞의 논문(1989), p. 62 참조.

32 감신총 서벽 감실의 인물상을 불상이라고 보는 견해는 이태호, 『고구려 고분벽화 해설서』(폴빛, 1995), pp. 57-59; 이재중,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국미술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2004), pp. 198-199; 김진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美術史學研究』 258(2008), p. 44 참조. 감신총의 편년에 대해서는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pp. 93-96 참조.

33 고구려 고분벽화의 王字 流雲文에 관한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鄭炳模, 「高句麗古墳壁畫의 裝飾文樣圖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0(1998), pp. 105-155; 全虎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pp. 158-160;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서경문화사, 2011), pp. 121-242; 朴雅林, 「고구려 벽화의 장식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2012), pp. 61-62; 同著, 「고구려 벽화고분의 帷帳의 설치와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44(2012), pp. 4-5 참조. 특히, 정호섭은 감신총 서벽 감실 뒷벽의 王字 유운문이 法王의 상징, 즉 부처를 상징화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호섭, 앞의 책 (2011), pp. 221-222 참조.

34 전실 북쪽 벽면에 그려진 공양자상 3구는 서쪽 감실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서 공양물을 받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 75의 도 78;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 무덤벽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주자소, 2006), 도 36-38 참조.

35 장천 1호분 예불도의 여래좌상을 통해 살펴보는 고구려 불상에 대해서는 文明大, 「長川1號墓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1(1991), pp. 137-153 참조.





도 6. 長川 1호분 예불도의 여래상, 고구려 5세기, 吉林省 集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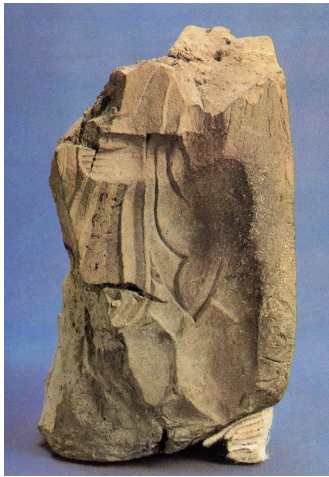
을 것이다. 이처럼 고분벽화를 통해서 다소나마 엿볼 수 있는 고구려 초기 여래좌상의 면모는 지금부터 살펴보는 토성리 출토 불상범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다.

### Ⅲ. 토성리 출토 불상範의 유형과 양식

도제 불상범은 간단히 줄여 陶範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조불상을 다량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불상틀[거푸집]이다. 소조불은 손으로 빚어서 제작하기도 하지만[손빚기], 앞·뒷면의 두 개의 거푸집을 사용하여 成型하여 접합하기도 하고[틀찍기], 앞면만 있는 片面範을 사용해서 앞면을 만들고 뒷면은 대나무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기도 한다. 도제 불상범은 흙으로 만든 것이지만 燒成을 거쳐 단단한 테라코타(terracotta)가 되었기 때문에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이 도범에 흙을 밀어 넣어 성형한 소조불상은 ‘泥佛’이라고도 불리는데, 불상의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라는 利點 때문에 고대에 유행했던 불상제작 기법이다.<sup>36</sup>

<sup>36</sup> 國內에서 발표된 古代소조불상에 대한 주요 論考로는 文明大, 「元五里寺址 塑造像의 研究」, 『考古美術』 150(1981), pp. 58-70(同著, 『한국의 불상조각 1 - 三國時代 佛教彫刻史 研究 관불과 고졸미』(예경, 2003), pp. 166-176에 재수록); 朴永福, 「靑陽 陶製佛像臺座 調査報告」, 『美術資料』 49(1992), pp. 64-91; 安秉燦, 「靑陽 陶製佛像 臺座





도 7-1. 소조 불상범, 고구려, 평양 토성리 출토, 높이 18cm, 평양중앙력사박물관 소장



도 7-2. 평양 토성리 출토 소조 불상범의 석고 모형(『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圖 57)

도제 불상범은 고구려에서 소조불상이 유행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인데 1931년에 평양 토성리에서 3점이 출토되어 현재 평양중앙력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도 7, 8. 이 불상범들은 불상의 앞면만 찍는 片面的 거푸집으로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2점은 잔존높이가 각각 18cm, 16cm이고, 평양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점은 18cm이다.

토성리 불상범들은 두 종류의 불상을 제작하던 거푸집이었는데, 이 중에서 평양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평안남도 덕산면의 원오리사지(現 평안남도 평원군 덕포리)에서 출토된 소조여래좌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sup>37</sup> 이 토성리 불상범의 소조여래상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현존하는 2종의 불상범을 제 1형과 제 2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하겠다.

의 復原과 製作技法, 『美術資料』 51(1993), pp. 150-163; 李炳鎬, 「扶餘 定林寺址出土 塑造像의 製作技法과 奉安場所」, 『美術資料』 72・73(2005), pp. 29-90; 林碩奎, 「渤海 塑造佛像의 性格과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 『北方史論叢』 7(2005), pp. 273-307; 梁銀景, 「遼寧省 朝陽 北塔 出土 塑造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56(2007), pp. 77-112; 同著, 「高句麗 塑造佛像과 中國 塑造佛像과의 關係」, 『東北亞歷史論叢』 24(2009), pp. 301-361; 同著, 「百濟 帝釋寺址出土 塑造像의 分析과 木塔址를 通한 奉安原形 推定」, 『湖西考古學』 23(2010), pp. 44-81; 李炳鎬, 「百濟 泗沘時期塑造像의 展開過程」, 『奈良美術研究』 10(2013), pp. 23-52; 同著, 「百濟 泗沘時期 塑造像의 展開過程」, 『東垣學術論文集』 14(2013), pp. 353-357; 梁銀景, 「南朝 塑造像 研究」, 『百濟研究』 58(2013), pp. 85-121; 崔聖銀,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 新羅 및 日本 白鳳期 塑造像과 관련하여 -」, 『百濟文化』 49(2013), pp. 5-40.

<sup>37</sup> 小泉顯夫,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의 調査」,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 1938), pp. 63-72 및 도판 제 57 no.184, 185, 186 참조.



도 8-1. 소조 불상범, 고구려, 평양 토성리 출토, 높이 18, 1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고대불교조각대전』, p. 173 도 82)



도 8-2. 소조불상범의 복원모형,  
일제시대(『高句麗時代之遺蹟』  
上, p. 74)



도 8-3. 소조불상범의 복원모형,  
국립중앙박물관(『고대불교조각대전』,  
p. 172 참고 1)



도 8-4. 소조불상범의 복원모형 드로잉

### 1) 토성리 출토 불상범 제 1형(평양중앙력사박물관)

평양중앙력사박물관 소장의 토성리 출토 도제 불상들은 이를 이용해서 일제강점기에 석고로 제작된 모형 도 7-2 을 보면 상체에 U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진 大衣를 通肩式으로 입고, 두 손은 마주 포개어 배에 대고 있는 이른바 ‘초기 禪定印’의 수인을 結하고 있다. 손 아래로는 일정한 간격의 세로[縱] 주름이 좌우 대칭으로 새겨진 옷자락이 單瓣의 연화대좌 위로 늘어지고, 양쪽 팔



도 9-1. 元五里寺址 소조여래좌상, 고구려, 평남 평원군 덕포리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9-2. 元五里寺址 소조보살입상, 고구려, 평남 평원군 덕포리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에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무릎을 덮고 끝이 뾰족한 V자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이 원오리사지 소조 여래좌상 도 9-1과 완전히 일치하여 원오리사지 소조불상들은 토성리 불상범과 똑같은 거푸집, 다시 말해서 同範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 불·보살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져<sup>39</sup> 불상은 ‘千佛像’으로 조성되어 불교신앙 측면에서 고구려시대 대승불교 사상을 알려주는 상으로 생각되며, 북위후기에서 東魏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 불교조각 양식과 비교되어 6세기 작품으로 편년되었다. 보살상 역시 북위 후기에서 東魏 무렵의 양식을 따른 6세기의 전형적인 보살상 형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도 9-2.<sup>40</sup> 원오리사지에서 출토한 소조불좌상의 크기는 약 19.5cm로 제작기법은 앞면은 片面的 거푸집을 사용하여 틀 찍기 기법으로 성형하고 뒷면은 대나무갈[篋]로 마무리한 뒤, 저온에서 燒成하여 표면에 채색한 것이었다.<sup>41</sup>

38 조사자 小泉顯夫는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여래좌상이 평양 토성리 출토의 도범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同範에 의한 제작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원오리사지가 있는 만덕산의 북쪽 기슭 橘里의 절터에서도 같은 종류의 소조불상이 출토하였다고 한다. 小泉顯夫, 앞의 보고서(1938), p.72.

39 1932년 평양의 고물상에 소조불두들이 나왔고 이를 추적한 결과 1935년 평양시의 서북쪽 평남 평원군 덕산면에 있는 萬德山의 서남 기슭에서 원오리사지가 확인되어 1937년 발굴이 이루어졌다. 절터는 대부분 경작지화되었고 上下 2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상단의 중앙부와 서쪽 부분은 고려시대 유구가 발견되었으나 그 동쪽 부분에서 고구려 사찰터가 확인되었고 여기서 다수의 고구려 연화문 와당과 소조불상이 출토되었다. 소조불좌상(19.5cm)은 頭部와 身部 포함 204片이고 보살입상(17.5cm)은 108片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대좌 밑에 구멍이 뚫려있어 어디에 꽂아두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小泉顯夫,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의 調査』,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 1938), pp. 63-72; 秦弘燮, 『韓國의 佛像』(一志社, 1976), pp. 185-186; 文明大,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 - 高句麗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考古美術』150(1981), pp. 58-70(同著, 『한국의 불상조각 1 - 三國時代 佛教彫刻史 研究 卷불과 고졸미』(예경, 2003), pp. 166-176에 재수록); 金理那, 앞의 논문(1996), pp. 104-106; 梁銀景, 앞의 논문(2009), pp. 303-307 및 pp. 321-328 참조.

40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6세기 중엽에 가까운 전반설(金元龍), 6세기 2/4분기 말에서 3/4분기 초(文明大), 6세기 후반설(松原三郎) 등 다양하나 대체로 6세기로 편년된다. 松原三郎, 『三國時代彫刻樣式の時代區分に就いて』,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金載元博士回甲紀念事業委員會, 1969), p. 106; 金元龍, 『韓國古美術의 理解』(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 50; 文明大, 앞의 논문, pp. 61-66; 金理那, 앞의 논문, p. 106.

41 처음에 발굴했을 때에 소조상의 일부파편에는 표면에 흰색과 붉은색 안료의 흔적이 있었다. 小泉顯夫, 앞의 보고서(1938), p. 68. 한편 梁銀景은 저화도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소성을 거치지 않은 소조상들이 목탑이 화재



도 10. 동조여래좌상, 北魏 興安 2年(453), 對馬島 개인소장  
(上原和, 『人間の美術 3 佛教の幻惑 飛鳥・白鳳時代』,  
p. 17 圖 6)



도 11. 석조여래좌상, 北魏 承明元年(476), 높이 73cm,  
보스톤미술관 소장

원오리 소조여래좌상과 같은 형의 토성리 불상범을 제 1형으로 분류할 때, 제 1형은 통견식으로 표현된大衣에 U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진 것이라든지 초기 禪定印을 결한 점 등에서 독특한古式의 표현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오호십육국시대의 금동여래좌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성리 도제 불상범이나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에서 대의 옷주름이 세로 주름으로 늘어진 표현은 오호십육국시대의 금동여래좌상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대의 옷주름 표현은 북위의 이른 시기 불상에서 몇 구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서 먼저 북위 興安 2년(453) 동조여래좌상을 꼽을 수 있는데, 도 10 대좌에 새겨진 명문에서 ‘釋伽文佛’이라는 글자가 판독된<sup>42</sup> 이 상은 이국적인 相好 뿐 아니라 머리 앞부분도 渦卷紋이 표현되었고, 육계와 머리 측면만 사선방향의 直毛로 표현된 점, 간다라풍의 통견식으로 입은 대의 양 팔에 길고 빼죽한 옷주름이 새겨진 점 등에서 北涼(397-439년), 涼州 지역의 불상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주 포갠 두 손은 배에 대고 있지 않고 선정인을 결하고 있으며 수인 아래로 늘어진 옷자락에는 등간격의 세로 주름이 새겨

로 소실될 때 단단하게 구워졌을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였다. 梁銀景, 앞의 논문(2009), pp. 329-338 참조.

<sup>42</sup> 이 불상은 전체높이 22cm, 불상높이 11.5cm의 소형 상으로 1988년 대마도(上縣町 佐護仁田 内南里)의 한 祠堂에서 발견된 長崎縣 개인소장품이다. 연호와 함께 ‘釋伽文佛’의 명문(“興安二年歲次 癸巳四月口日 造釋迦文像口”)이 판독되었다. 大西修也, 『飛鳥前期の小金銅佛と朝鮮三國期の造像』, 『法隆寺獻納宝物金銅仏Ⅰ』(東京:東京國立博物館, 1996), pp. 347-348; 上原和, 『人間の美術 3 佛教の幻惑 飛鳥・白鳳時代』(東京:學習研究社, 2003), p. 17 圖 6; 金理那, 앞의 논문(1996), pp. 92-93; 村田靖子, 『小金銅佛の魅力 - 中國 韓半島 日本 - 』(東京:里文出版, 2004), p. 43의 도 41 및 p. 214의 해설 참조.





도 12, 석조여래삼존상, 北魏 太和 20년(496), 陝西省博物館 소장



도 13, 석조여래좌상, 北魏 太和 19년(495)경, 原 소재지 甘肅省涇川縣 西王母廟(王母宮石窟)(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本文編, p. 236 挿圖 5)

저 그 끝부분이 둥글게 말려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북위 承明 원년(476) 석조여래좌상 도 11,<sup>43</sup> 태화 20년(496) 석조여래좌상 도 12<sup>44</sup>과 같은 북위 5세기 후반 불상에서도 나타난다. 이 상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 감숙성 平涼市 涇川縣 소재 西王母廟(王母宮石窟)에서 20세기 초에 반출된 석조여래좌상을 꼽을 수 있다 도 13.<sup>45</sup> 이 불상은 얼굴 상부가 훼손되었으나 매우 여성적인 상호에 U자형으로 옷주름이 새겨진 인도식 착의형식을 보이며 마주 포개 두 손의 아래로 수직주름이 표현되었다. 섬서, 감숙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고식 선정인 여래좌상이 여러 구 전하고 있어<sup>46</sup> 북위 5세기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북위 불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통견식으로 가사를 입었고 선정인의 수인을 결

43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Osvald Siren, *Chinese Sculpture*, pl.277 c;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東京:吉川弘文館, 1995), 圖版編 1권, 도 51; 金申,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北京:文物出版社, 1994), p. 41 도 28 참조.

44 西安 陝西省博物館 소장. 李域錚 編著, 『陝西古代石刻藝術』(上海:三秦出版社, 1995), pp. 34-35; 松原三郎, 앞의 책, 도 102; 金申, 앞의 책, p. 89 도 59 참조.

45 王母宮石窟은 1929년 미국의 Langdon Warner가 중국 서북지역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북위시대의 석굴로서 운강 석굴 제 6굴과 비교할 수 있는 중심주굴이다. James Marshall Plumer, "China's Ancient Cave Temples, Early Buddhist Sculpture in the North-West", *The China Journal* Vol. XXII, No. 3(1935), pp. 104-109; 松原三郎, 앞의 책(1995), 本文編, p. 30 및 p. 36 挿圖 5; 張寶璽, 『甘肅涇川王母宮石窟調查報告』, 『考古』 7, pp. 622-626; 楊曉春, 『从《金石錄》的一則題跋推測甘肅涇川王母宮石窟的開鑿者與開鑿時代』, 『敦煌研究』 1(2008), pp. 35-37 참조. 大佛洞 또는 千佛洞으로도 불리는 王母宮石窟의 개착시기에 대해서 張寶璽는 北魏 永平 2년(510)무렵으로 편년하는데 비해, 楊曉春은 『金石錄』에 실린 『後魏化政寺石窟銘』 가운데 涇州刺史 杞疑이 개착한 석굴기록을 바탕으로 왕모궁석굴의 개착시기를 北魏 太和 19년(495)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46 松原三郎, 앞의 책(1995), 圖版編 I 도 56, 57, 58 참조.



했으며 수인 아래로 늘어진 옷자락에는 등간격의 주름이 세로[縱]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표현은 4-5세기의 오호십육국과 북위전기의 불상들에서 수인 아래로 통상 U자형의 옷주름이 새겨진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유형은 오호십육국에서 북위에 걸쳐 중국 서북지역에서 유행했던 불상유형 가운데 하나로 해서 그 시기에 고구려에 전해져 여래좌상 형식의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여래좌상의 형식은 평양일대의 무덤벽화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한 5세기 전반의 감신총 전실 서감의 여래좌상에서도 가사 앞자락에 새겨진 세로 옷주름이 나타나고 도 5, 5세기 후반 고분으로 알려진 雙楹塚 현실 북벽의 묘주초상에서도 유사한 옷주름 표현이 발견된다 도 14. 여기서는 두 손을 맞대어 마치 선정인 여래좌상과 흡사한 자세로 앉은 묘주의 다리 사이로 세로 옷주름이 표현된 옷자락이 다리의 중앙에 늘어진 것을 볼 수 있다.<sup>47</sup>



도 14. 쌍영총 현실 북벽 묘주초상, 고구려 5세기, 평남 남포시 용강군.

## 2) 토성리 출토 불상범 제 2형(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파편 두 점은 한 불상범의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제 1형의 불상범이나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과는 전혀 다른 불상 형태를 보여준다 도 8-1. 이 파편 2점은 처음 조사되었을 당시 석고로 각각 복원된 바 있으나 도 8-2, 199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삼국시대 불교조각> 특별전 때는 하나의 상으로 복원되어 그 형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도 8-3.<sup>48</sup>

불상의 모습은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배에 붙인 초기 선정인의 수인은 앞의 제 1형과 동일하지

<sup>47</sup> 쌍영총의 현실 동벽에는 승려를 비롯하여 9명의 인물이 묘사된 행렬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공양도로 생각되고 있어, 쌍영총 묘주의 불교신앙을 엿볼 수 있다.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6)-고구려편(4)』(외국문종합출판사, 1990), p. 134; 이태호·유홍준, 『高句麗古墳壁畫』(도서출판 풀빛, 1995), p. 143;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pp. 177-183; 안휘준, 앞의 책(2013), pp. 124-127 참조.

<sup>48</sup> 이 논문을 마칠 무렵 9월 24일에 개막된 「고대불교조각대전」에 새롭게 제작된 복원모형이 전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대불교조각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5), p. 172 해설 및 <참고 1>.



도 15-1. 석조무량수 · 미륵 2면불상  
(미륵불상 부분), 南齊 永明元年(483),  
높이 116cm, 四川省博物館 소장  
(東京國立博物館, 2000,  
『中國國寶展』, p. 171 圖 1-2)



도 15-2. 석조무량수 · 미륵 2면불상(측면 부분),  
四川省博物館 소장(東京國立博物館,  
2000, 『中國國寶展』, p. 172 圖 2-1)

만 옷주름의 형태는 복잡해졌고 坐幅은 넓으며 대좌의 절반가량을裾으로 덮은 상현좌가 표현되었다. 상체의 착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하체의 옷주름은 중앙에서 긴 U자형을 이루며 늘어지고, 소매단의 지그재그 주름을 이룬 옷자락이 무릎을 덮었으며, 무릎(현재 왼쪽 무릎과 그 아래 부분은 결실) 아래로는 버섯머리 모양의 역오메가형 주름을 이룬 두 개의 V자형 옷자락이 위, 아래 두 겹으로 흘러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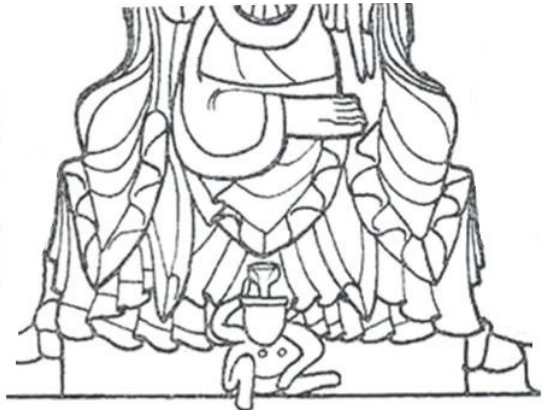
제 2형범의 여래좌상에서 보이는 대좌를 덮은 대의 옷주름이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표현은 북위 불상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양식적 淵源을 南朝 불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sup>49</sup> 실제로 이와 같은 토성리 제 2형범 여래좌상과 선정인의 수인 등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가사자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3개의 U자 또는 V자형 옷자락을 이루면서 길게 흘러내리는 표현은 남조의 南齊 불상들에서 발견된다. 그 첫 번째 예로는 사천성 무현출토의 永明 원년(483)명 석조무량수 · 미륵 2면불상 가운데 미륵여래 좌상과 이 碑像의 측면에 새겨진 소형 여래좌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 15. 이 비상은 1921년에 발견되어 학계에 널리 알려진 상인데,<sup>50</sup> 미륵여래좌상의 대의 주름이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의 자락으로 나뉘었고 아래 끝단이 뾰족한 V형과 U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주름이 새겨진 裾

49 최성은, 앞의 논문(2007), p.63.

50 劉志遠 劉廷璧, 『成都萬佛寺石刻藝術』(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8), 附圖 1, 2; 吉村怜, 『南北朝佛像樣式史論』, 『國華』 1066(1983); 袁曙光, 『四川茂汶南齊永明造像碑及有關問題』, 『文物』 2(1992) 참조.



도 16-1. 석조삼존불좌상, 南齊 永明 8年(490),  
四川省博物館 소장(『世界四大文明 中國文明展』  
(NHK, 2000), p. 157 圖 99)



도 16-2. 석조삼존불좌상의 상현좌 부분 도면(부분)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1998, p. 6 圖 4)

으로 보이는 옷자락 위로 흘러내린다. 같은 형태의  
옷주름은 이 비상의 측면에 새겨진 소형불상에서도  
나타나는데 도 15-2, 끝단이 V자(중앙), U자(양측)  
형을 이루거나 모두 U자형을 이루거나 차이는 있  
지만 옷자락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표현되는 점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가사 주름의 표현의 예를 더 찾아보  
면, 근래 成都 西安路에서 출토한 영명 8년(490)  
석조삼존불상에서 무릎을 덮은 가사 자락이 V자  
형 끝단을 이루면서 3개의 옷자락으로 나뉘어 늘  
어져 내려오는 것이 보이며 도 16,<sup>51</sup> 최근에 成都 商  
業街에서 출토한 남제 建武 2년(495)명 석조삼존  
불상에서도 가사의 옷자락이 중앙에는 V형, 좌  
우에는 U자형의 끝단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표현



도 17. 석조삼존불좌상(觀音成佛像), 南齊 建武 2年(495),  
四川省博物館 소장(張肖馬·雷玉華, p. 12 圖 16)

<sup>51</sup>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整理簡報」, 『文物』 11(1998), pp. 4-20  
및 p. 6의 도 4.





도 18. 소조여래좌상, 南京 上定林寺址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2015, p. 81. 도판 3)

이 발견된다 도 17.<sup>52</sup> 이와 유사한 옷주름 표현은 남조의 수도 建康 일대에서도 보인다. 南京 鐘山 上定林寺址 출토 소조여래좌상은 통견식의 가사에 시무와 · 여원인을 결하고 무릎을 덮은 가사는 중앙 부분이 V자형으로 뾰족하고 양 무릎아래는 둥글게 표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앞의 남제시기 여래좌상들과 유사함을 보인다 도 18.<sup>53</sup> 또한 南京에서 동북쪽으로 약 22킬로 떨어진 棲霞寺 천불동 24굴 정벽 본존상에서도 이와 같은 가사자락의 표현이 나타난다 도 19. 서하사 천불동의 개착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sup>54</sup> 앞에서 언급된 상현좌 옷주름의 표현이 다른 梁代 여래좌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불교문화가 더욱 융성하고 다양해졌던 梁代에 이르러서 서하사 19굴[大佛窟] 본존

상에서처럼 조금 더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상현좌 도 20로 변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반해 고구려 조각에서는 토성리 제 2형범 여래좌상에서 보이듯이 5세기 남제 여래좌상에서 보이는 고식의 표현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북위 조각에서도 발견되는데, 북위 불상들 가운데 남제시대 불상들과 옷주름 표현이 기본적으로 유사하여 서로 연결지을 수 있는 상들은 남제 불상들에 비해 제작시기가 거의 반세기 가까이 늦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해박물관 사면석불의 여래좌상<sup>55</sup>, 섬서성 건현출토의 북위 普泰 원년(531) 사면불비상의 여래좌상 도 20<sup>56</sup>이나 麥積山石窟 133굴 제3호감의 서위시대 소조여래좌상 도 21<sup>57</sup> 등이 그 예이다.<sup>58</sup> 이 상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조 불상양식으로부터 영향

52 張肖馬·雷玉華, 「成都市商業街南朝石刻造像」, 『文物』10(2001), p. 7의 도 7, pp. 9-10, p. 12의 도 16 참조.

53 賀云翱, 「南京鐘山上定林寺遺址考古的主要收穫」, 『國際學術大會 백제 사비도성의 불교사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한국고대학회, 2015), p. 4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정림사와 북위 영녕사』(통천문화사, 2015), p. 81 도판 3.

54 棲霞寺 24굴을 19, 22굴과 함께 南齊 永明 2년(484년)에 개착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宿白, 「南朝龕像遺蹟初探」, 『考古學報』4期(1989), (同著, 『中國石窟寺研究』(北京:文物出版社, 1996), pp. 176-179; 林蔚, 「棲霞山千佛岩區南朝石窟的分期研究」, 『燕京學報』(新 19)(2005), pp. 275-308 참조. 佛衣 유형을 통해서 南齊와 梁 사이로 보는 견해는 陳悅新, 「棲霞山石窟南朝佛衣類型」, 『華夏考古』2期(2010), p. 85 참조. 梁 武帝시기의 개착으로 보는 견해는 稻本泰生, 「南京棲霞寺石窟試論 - 五世紀末~6世紀初頭の建康造像の位置づけをめぐる」, 『佛敎學研究』39-2(1997), pp. 1-39; 藤岡穰, 「中國 南朝 彫像の製作과 傳播」,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고대불교조각의 흐름』(국립중앙박물관, 2015), p. 170 참조.

55 『上海博物館 中國古代雕塑館』(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6), 圖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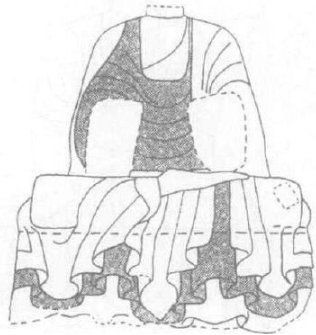
56 松原三郎, 앞의 책, 도판권 1, 도 212b 참조. 西安碑林博物館 소장. 전체높이 115.5cm.

57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 編, 『中國石窟 天水麥積山』(北京:文物出版社, 1998), 도판 88, 도판 98, 도판 151.

58 맥적산석굴 제 133굴 여래좌상과 사천성 무현 출토 석조미륵·아미타여래비상의 상현좌 형식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岡田健과 石松日奈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山名伸生은 四川과 북쪽의 涼州, 隴西, 長安지역에서 5세기에 불상의 중국식 복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상현좌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한 岩井共



도 19-1. 석조여래좌상, 南齊~梁, 棲霞寺  
제 24굴 정벽 본존상, 江蘇省 南京  
(자료제공 南京大學 賀云翱教授)



도 19-2. 棲霞寺 천불동 제 24굴 정벽  
여래좌상의 드로잉(陳悅新, p. 84 圖 2-1)



도 20. 석조여래좌상, 梁, 棲霞寺 제 19굴(大佛窟)  
본존상, 江蘇省 南京



도 21. 석조여래좌상, 西魏, 麥積山石窟 133굴 제3호감,  
甘肅省 天水

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상들이 일부 碑像의 조각이나 지리적으로 중원에서 멀

二는 맥적산석굴 133굴 여래좌상을 覆足型으로 분류하고 이 형식의 裳懸座는 불상 중앙의 대의는 큰 U자형을 그리며 내려오고 양쪽 무릎의 바깥으로 대의자락이 늘어지는데, 施無畏·與願印 佛像도 있지만 禪定印 佛像의 例가 많으며 이른 시기에 유행한 것으로 보았다. 岡田健·石松日奈子, 「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 上·下」, 『美術研究』 356·357(1993), pp. 181-203, pp. 223-242; 岩井共二, 「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裳懸座の展開」, 『佛教藝術』 212(1994), pp. 37-60; 山名伸生, 「土浴渾と成都の佛像」, 『佛教藝術』 218(1995), pp. 11-38; 『中國石窟 天水麥積山』(北京:文物出版社, 1998), 도 88 및 도 151 참조.



리 떨어진 섬서, 甘肅지역의 불상에서만 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북위의 중앙양식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조의 불상양식이 四川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방문화 연결루트<sup>59</sup>를 따라 섬서, 감숙지방의 불상양식에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두 종류의 불상법이 고구려 초기 불교조각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V. 토성리 출토 불상법을 통해본 고구려 초기 불교조각

토성리 출토 불상법에서 미루어 볼 때, 토성리에서 제작된 소조여래좌상의 형식은 두 종류였다. 그 하나는 단판 연화좌에 앉아 초기 선정인을 결한 양손 아래로 세로 주름이 새겨진 옷자락이 내려오고 좌우 소매에서 늘어진 옷자락은 양 무릎을 덮으며 V자형 주름을 이룬 제 1형으로 북위전기 불교조각의 요소를 보이고, 두 번째는 초기 선정인을 결한 양 손 아래로 긴 U자형의 옷주름이 길게 내려오고 좌우 무릎을 덮은 옷자락 아래로는 V자형 옷주름이 길게 늘어져 세

부분으로 나뉜 옷자락이 대좌를 덮은 상현좌의 제 2형으로 남조 조각의 요소를 보인다. 이 두 형의 불상법은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에서 보이듯이 불상을 다량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거푸집을 만들 때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 세부 표현을 단순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토성리 工房의 조각장인들이나 불교도들에게 친숙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여래상의 이미지였다고 생각된다.



도 22. 연가7년명 금동여래입상, 고구려 539년경, 경남 의령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먼저 제 1형법의 여래좌상은 그 통견식의 착의 형식이나 手印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서울 독섬에서 출토한 금동여래좌상이나 5세기의 長川 1호묘 벽화 예불도의 여래좌상 도 6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원오리사지 소조여래좌상이 6세기 전반 내지는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으므로 제 1형법 여래좌상의 제작시기는 고구려 불상을 대표하는 延嘉 7년 己未銘 금동여래입상(539년경)<sup>60</sup>과

<sup>59</sup> 四川지역에서 涼州, 隴西, 長安지역을 거쳐 북방 吐谷渾까지 연결되는 북방문화 연결루트에 대해서는 山名伸生, 앞의 논문(1995), p. 23 참조.

<sup>60</sup> 黃壽永, 「國寶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 1(1964); 金元龍, 「연가칠년명금동여래상명문」, 『考古美術』 10(1964); 金理那, 앞의 논문(1996), pp. 94-96.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작지 또한 같은 평양이다. 당시는 남북조 불상에서 유행한 중국식 착의법의 영향이 고구려에도 알려져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에서도 비록 옷고름[紐, 紵帶]의 표현은 없지만 이른바 褒衣博帶式의 중국식 복제를 따르고 있다 도 22. 그런데 토성리 제1형범이나 원오리 소조여래좌상에서는 U자형 주름이 새겨진 인도풍의 통견식 착의법을 따르고 5세기 조각의 보수성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相好의 표현에 있어서도 연가명 금동여래입상에서 보이는 秀骨清像의 가름하고 이지적인 얼굴과 달리,



도 23. 魏文朗造像碑, 고구려 6세기초, 陝西省 漆水출토, 耀縣 藥王山博物館 소장

원오리 소조여래좌상에서는 둥그랗고 온화하면서도 여성적인 佛顔이 표현되어 양식적인 면에서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61</sup>

토성리 제 1형범과 동범인 원오리 소조여래좌상의 얼굴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분위기는 불교도상의 수용과 토착화 단계에서 전통적인 신앙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위 불교조각에서 道佛융합의 경향이 있었던 것은 이미 지적되어 왔으며<sup>62</sup> 그 단적인 예를 陝西省 漆水에서 출토된 「魏文朗조상비」 도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상의 앞면에는 불상과 도교상이 나란히 배치된 佛道竝坐像이 조각되었는데, 향좌측의 도교상은 여성과 같은 복식에 세로 주름이 촘촘하게 새겨진 치마를 입고 있다.<sup>63</sup>

「위문랑조상비」의 불도병좌상과 도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이 남조에도 전한다. 사천대학

<sup>61</sup> 이와 같은 상호의 표현은 동그란 球形의 육계와 함께 동위(534-550) 불교조각의 요소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근래 다수의 남조 불상의 출현으로 북조 불상에 선행하는 구형 육계의 표현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인식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그란 球形의 육계는 南京 新街口에서 출토한 梁 大通元年(527) 금동삼존불입상(南京市博物館)의 본존상에서 발견되며, 이보다 십년 뒤에 산둥지역에서 제작된 東魏 天平4年(537) 석불입상(東京大學 文學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崔聖銀, 앞의 논문(2007), pp. 58-59; 梁銀景, 앞의 논문(2011), pp. 67-97; 崔聖銀, 앞의 논문(2012), p. 67의 註 33.

<sup>62</sup> 중국 초기 불상과 전통적인 道敎的 요소와의 융합에 대해서는 松原三郎, 앞의 책(1995), 本文編, 第5章 「北魏陝西派石造の一系譜 -とくに道佛並存と融合-」, pp. 35-52; 李正曉, 『中國早期佛教造像研究』(北京:文物出版社, 2005), pp. 142-146 참조.

<sup>63</sup> 이 상은 1934년 陝西省 漆水에서 발견되었는데, 북위 始光元年(424)으로 알려져 왔으나 石松日奈子是 銘文의 새로운 判讀과, 樣式的인 요소, 5세기 전반의 長安지역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碑像의 제작시기를 500년대 초(500~514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松原三郎, 앞의 책(1995), 圖版編 I, 圖 17 및 本文編, p. 35; 石松日奈子, 「陝西省耀縣藥王山博物館所藏 魏文朗造像碑の年代について -北魏始光元年銘の再検討-」, 『佛教藝術』 240(1998), pp. 13-32(同著, 『北魏佛教造像史の研究』(東京:Brücke, 2005), pp. 192-193 및 pp. 287-299에 재수록).



도 24. 石造釋迦雙身像, 梁 太清 3년(549), 사천대학박물관 소장



도 25. 금동여래입상, 北魏 太平眞君 4年(443), 大阪 개인 소장

박물관 소장의 梁 太清 3년(549)명 釋迦雙身像 도 24 의 불상이 나란히 배치된 竝坐像으로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향우측의 여래좌상의 옆에 禪定印을 결한 좌상이 있다.<sup>64</sup> 명문에 따르면 이 두 상은 석가의 쌍신인데, 실제로 우측 여래상의 모습은 매우 여성적인 자태를 보이고 있어 이 쌍신상의 조형적 範本이 남조에 전해오던 佛道竝坐像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불교도상의 수용과 토착화 단계에서 도불융합의 양상은 남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은 북위 太平眞君 4년(443) 금동여래입상 도 25의 당당하고 남성적인 모습과 달리 거의 같은 시기에 남조에서 조성된 宋 元嘉 14년(439) 금동여래좌상의 여성적인 모습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도 4. 그런데 元嘉 14년명 금동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일부 불상들에서 보이는 여성적인 형상의 표현은 불도명좌상에서 표현된 도교상이 남성인 노자[黃老]가 아닌 여성인 서왕모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왕모는 곤륜산에 사는 不死의 神으로 崑崙仙界的 주관자이며 장생불사를 가능하게 하는 불

<sup>64</sup> 이 상은 銘文에 ‘釋迦雙身像’이라고 밝히고 있다. “梁太清三年七月八日佛弟子丁文亂爲亡妻蘇氏敬造釋伽双身尺六刑石像一丘愿亡妻并及七世永离幽苦常往西方淨土現在儿(孫)安隱口諸灾愿一切衆生普同斯原,” 霍巍, 「四川大學博物館所藏的兩尊南朝石刻造像」, 『文物』 10(2001), p. 40 및 p. 41의 圖 2 참조.



사약의 관리자이다. 도교 성립 이전인 춘추 전국시대부터 알려졌다고 여겨지며 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폭넓게 신앙되었다.<sup>65</sup> 이처럼 漢族 사회에서 숭배되던 서왕모의 이미지는 이국적인 형상의 불상이 중국화되는 과정에서 그 도상과 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sup>66</sup> 그 예로 꼽을 수 있는 四川省 출토의 天門 위에 앉아있는 서왕모상 도 26은<sup>67</sup> 초기 불상과 거의 흡사한 자세로 앉아 두 손을 댄고 있는 옷자락에는 세로 주름이 표현되어있다. 이 서왕모상의 모습은 앉은 자세와 여성적인 면모, 세로주름이 강조된 착의형태 등에서 西王母廟[王母宮石窟]의 석조여래좌상 도 13을 비롯한 일부 불상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조 시대 도불융합의 결과로 나타난 불상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26. 서왕모상, 漢代, 사천성 출토(金善子, p. 404의 도 6)

고구려 불교계 역시 한대 이래 남북조시대로 이어지는 한족들의 신앙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지역은 일찍부터 낙랑사회에서 서왕모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영향이 고구려 사회에도 미쳤을 것이며<sup>68</sup> 원오리 소조여래좌상 도 9-1에서 보

<sup>65</sup> 漢代에 서왕모신앙의 유행에 대해서 『漢書』「哀帝紀」建平 4年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관동의 백성들이 서왕모를 위해 길을 치우며 여러 군을 거쳐 서쪽으로 수도 장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왕모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밤에 횃불을 들고 지붕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북을치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은 서로를 놀라고 두렵게 했다(關東民傳行西王母籌，經歷郡國，西入關至京師，民又會聚祠西王母，或夜持火上屋，擊鼓號呼相驚恐).”

<sup>66</sup> 『山海經』에서 언급된 서왕모는 사람의 형상이면서 ‘표범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었으나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친근하고 아름다운 女仙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漢代 화상석과 화상전에 표현된 서왕모상은 머리에 꾸미개인 玉勝을 장식한 玉勝型和 옥승이 장식되지 않은 無玉勝型, 날개에 어깨근처에 표현된 羽人型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미술품에 나타난 서왕모와 그 형상에 대해서는 全虎兌, 「漢 畫像石의 西王母」, 『美術資料』 59(1997), pp. 1-49; 同著, 「고구려 감신총벽화의 서왕모」, 『한국고대사연구』 11(1997), pp. 377-379; 金善子, 「도상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漢代 畫像石 - 西王母 圖像을 중심으로 -」, 『中國語文學論集』 21(2002), pp. 391-419; 전호태, 「古代 中國의 西王母像」(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pp. 9-94; 李容振, 「漢代의 西王母 圖像」, 『東岳美術史學』 6(2005), pp. 101-127 참조.

<sup>67</sup> 金善子, 앞의 논문(2002), p. 404의 그림 6.

<sup>68</sup> 낙랑지역의 서왕모신앙이 유행했던 것은 출토된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後漢代 漆盤, 銅鏡과 銅盤을 비롯한 여러 유물을 통해서 뒷받침되며, 무덤의 구조와 벽화를 통해서 5세기 전반의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감신총 전실 궁륭부 서쪽에 서왕모상이 보인다(전호태, 앞의 논문, p. 372 및 pp. 376-398 참조).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六博과 씨름의 장면은 죽은 영혼이 서왕모가 사는 仙界로 진입하는 과정, 즉 통과절차를 상징하는 행위라는 것 역시 고구려 사회에서의 서왕모 신앙의 존재를 말해준다(임영애,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중국의 西王母



도 27. 금동여래좌상, 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남궁연씨 舊藏) 소장

이는 여성성과 함께 옷주름에서 강조된 고식의 표현 등은 이미 중국에서 서왕모 신앙과 도불 융합의 결과로 나타난 불상유형이 고구려로 전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토성리 제 1형범의 여래좌상이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의 도불융합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토성리 제 2형범 도 8의 소조여래좌상은 고구려조각에 끼친 남조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앞장에서 제 2형범의 상들과 비교되었던 남제 불상들은 상현좌의 옷주름 표현이 토성리 제 2형범과 유사하지만, 수인은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어, 선정인을 결한 토성리 제 2형범 여래좌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전하는 남조 5세기 불상의 수요가 매우 적고 고구려 불상 역시 희귀한 상황에서 이를 증명해 줄만한 작품이 전하지 않지만, 이 도상이 고구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토성리 제 2형범

을 통해서 남제 불상들과 유사한 형태의 상현좌에 초기 선정인을 결한, 이 상들보다 이른 시기의 남조 초기선정인 여래좌상 도상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남조의 고식 선정인 여래좌상의 한 유형이 평양지역에 전래되어 토성리 소조불상의 祖形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성리 제 2형범과 비교적 유사한 표현을 보이는 삼국시대 불상으로 남궁연씨 舊藏의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여래좌상 도 27을 꼽을 수 있다. 이 상은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배에 댄 선정인의 수인 아래로 발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 밑으로 길게 늘어진 가사자락은 중앙과 좌우에 각각 V자형의 뾰족한 끝단을 이루고 있어 토성리 소조불좌상의 단계에서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69</sup> 토성리 제 2형범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으로 발해의 東京(吉林省 琿春市)에서 출토한 석조이불명좌상이 전하고 있다.<sup>70</sup> 이 불상 도 28은 고구려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될 정도

신앙: 씨름그림에 나타난 '西域人', 『講座美術史』 10(1998), pp. 157-179 참조.

<sup>69</sup> 소형금동불상으로서 中空式이라는 발전된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토성리 소조불상들과의 옷주름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이 여래좌상을 6세기의 고구려 불상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sup>70</sup> 林碩奎, 「渤海 半拉城出土 二佛并坐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 2(1996), pp. 95-96; 文明大, 「渤海 佛像彫刻의 流派와 樣式研究」, 『講座美術史』 14(1999), pp. 9-10; 林碩奎, 「東京大 博物館 所藏 渤海佛像」, 『高句麗研究』 6(1998), pp. 373-374; 崔聖銀, 「渤海 佛教彫刻의 새로운 考察 - 中國, 日本 고대조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高句麗研





도 28. 石造二佛并坐像, 渤海,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출토,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도 29. 滑石製여래좌상, 高句麗, 傳 黃州출토, 소재불명(平壤博物館 舊藏)(梅原末治, 『朝鮮古代文化綜鑑』 4, 圖 190)

로 고식을 띠고 있는데,<sup>71</sup> 상현좌에 보이는 옷주름은 도식화되었으나,<sup>72</sup> 중앙 옷자락이 긴 U자형을 이루고 좌우 무릎 아래로 옷자락이 늘어진 표현은 기본적으로 토성리 2형의 상현좌 주름과 상통하며 여기서 단순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두 예를 근거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 2형범 불상은 앞의 제 1형범 불상과 함께 고구려 여래좌상의 한 형식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의 제 1, 2형의 두 종류의 범에서 보이는 개별 요소가 혼합되어 또 다른 하나의 불상 형으로 나타나는 불상이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는 傳 황주출토 활석 제 여래좌상 도 29은<sup>73</sup> 두부와 광배 일부를 잃은 높이가 약 12.5cm정도이고 지금은 사진으로만 전해오는 상이다. 이 불상은 맞대어 포갠 두 손 아래로는 세로 주름이 새겨진 가사자락이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흘러내려 방형대좌를 덮고, 중앙 옷자락의 끝단이 긴 U자형을 이루는 점에서는 토성리 제 2형 여래좌상과 유사하지만 등간격의 옷주름이 세로로 새겨진 것은

究』 26(2007), pp. 136-142 참조.

<sup>71</sup> 발해의 東京은 고구려의 柵城이 위치했던 곳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고구려시대에도 새로운 隋末唐初의 불상양식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구려시대 불교조각의 보수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崔聖銀, 앞의 논문(2007), pp. 127-128.

<sup>72</sup> 상현좌의 옷주름이 경직되고 형식화된 점은 이불명좌상의 제작시기를 발해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다. 文明大, 앞의 논문(1999), p. 26.

<sup>73</sup>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東京:六興出版, 1986), p. 338; 梁銀景, 앞의 논문, pp. 321-324 참조.



도 30. 景四年 辛卯銘 금동여래삼존상(부분), 高句麗 571년경,  
傳 黃海道 谷山출토,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토성리 제 1형범과 유사한 점이어서 이 불상에서 토성리 제1형과 제2형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 토성리 출토 도제 불상범은 틀찍기 기법으로 소조불상을 다량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片面範의 거푸집이기 때문에 불상제작이 용이하도록 옷주름을 포함한 세부 표현이 최대한 단순화된 불상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료가 石材인 傳 황주출토 여래좌상에서 토성리 불상범 2종의 특징이 보인다는 사실은 이 두 범의 불상형식이 일찍부터 평양 일대에서 유행했던 古式 여래좌상으로서 6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가장 일반화된 불상형식이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제 2형범 불상을 통해서는 5-6세기 고구

려 불상양식의 형성배경에 북조 뿐 아니라 남조 불상양식의 영향이 함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토성리에서 출토된 불상범과 동일한 형태의 불상이 원오리사지에서 출토된 것에 대해서는 원오리사지 조사 당시부터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토성리에서 제작되어 여기서 대동강 너머 북서쪽으로 수십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원오리사지로 운반되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불상 모델에서 제작된 몇 개의 거푸집의 하나가 원오리의 사찰로 운반되어 현지에서 제작되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sup>74</sup> 다만, 원오리사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만덕산의 북쪽 기슭 橘里의 절터에서도 같은 종류의 소조불상이 출토하였다는 傳言으로 미루어 볼 때,<sup>75</sup> 同範의 소조불상들이 원오리 사찰 외의 다른 사찰에도 봉안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토성리에서는 불상범 외에도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수막새 와당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4세기 이래 여러 주요 건물이 장구한 시간 동안 건립, 중수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다수의 사찰들도 경영되었으며 그 부속 공방에서는 불상 뿐 아니라 사찰장엄에 필요한 조각공예품들이 제작되어 평양 일대의 사찰에 공급되었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up>74</sup>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東京:六興出版, 1986), p. 338; 梁銀景, 앞의 논문, pp. 321-324 참조.

<sup>75</sup> 小泉顯夫, 앞의 보고서(1938), p. 72.

소조상도 사찰에 부속된 공방과 瓦窯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sup>76</sup> 평양천도 이후에는 토성리일대에 고구려의 관영공방이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공방에서는 초기에 전래되어 이어져 내려온 불상양식과 새로 전해진 양식이 함께 신구양식이 공존하는 불상들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景四年 신묘명 금동삼존불상(571년경)의 양감이 발달된 본존상의 얼굴과는 달리 광배에 새겨진 化佛들의 형상은 토성리 제 1형법의 불상과 같은 고식 불상의 잔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도 30.

## V. 맺음말

지금까지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한 도제 불상범을 중심으로 고구려 초기 불상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평양중앙력사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토성리 출토 불상범은 두 가지 형태의 소조불상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던 불상틀로서 고구려시대에 소조불상이 유행하여 다량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가운데 평양 원오리출토 소조여래좌상과 동범인 평양중앙력사박물관의 불상범(제 1형)은 북위 5세기 전반의 불상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에서 나타나는 여성적인 형상은 같은 시기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연가명 금동여래입상의 수골 청상의 상호표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여래좌상의 대의주름이 종선으로 새겨지는 것 역시 고식의 표현으로서 이 불상형식의 배경에 중국에서 漢代 이래 널리 신앙되었던 서왕모상의 도상이나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북위시대 5세기 중엽에서 6세기초에 이르는 섬서, 감숙지역의 불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불상범(제 2형)은 옷자락이 세부분으로 나뉘어 늘어진 상현좌의 표현에서 남조의 南齊시기 5세기 후반 불상의 영향을 받은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고구려시대 평양지역의 불교문화의 성격이 지리적으로는 북조와 인접하나 남조로부터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두 종류의 도제불상범 유형을 통해서 각각의 고구려 초기 여래좌상의 도상과 남조, 북조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두 종류의 불상범에 나타난 남북조 불교조각의 도상이 고구려 불상양식의 한 형태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성리 불상범(제 2형)을 통해 현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南朝의 초기 선정인 여래좌상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5. 9. 20 | 심사개시일 2015. 10. 21 | 게재 확정일 2015. 11. 17

<sup>76</sup> 북위 북조의 경우에는 도성주변에 토기나 전, 기와를 생산하는 관영의 요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와 마찬가지로 낙랑토성 일대의 토성리에도 전문공방이 있어 여기서 제작된 소조불상이 원오리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梁銀景, 앞의 논문(2009), p. 325 참조). 백제지역에서는 靑陽 본의리와 청양 汪津里 窯址에서 소조상과 대좌가 출토되어 소조상이 기와공방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병호, 「百濟 定林寺式伽藍配置의 展開와 日本의 初期寺院」, 『百濟文化』 54(2011), p. 119(同著,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사회평론, 2014), p. 77); 同著, 「扶餘 陵山里寺址 出土 瓦當의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1(2008), pp. 215-226(同著,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pp. 199-209) 참조.

## 참고문헌

『三國史記』  
『舊唐書』  
『晉書』帝紀 卷7, 卷10.  
『梁高僧傳』卷4  
『海東高僧傳』卷1  
『集神州三寶感通錄』  
『漢書』  
『山海經』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2, 1915.  
朝鮮總督府編,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 東京:大塚巧藝社, 1929.  
朝鮮總督府, 『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 1, 1933.  
朝鮮古蹟研究會,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查報告』, 193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89.  
국립중앙박물관, 『三國時代佛教彫刻』, 1990.  
서울대학교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2000.  
국립중앙박물관, 『樂浪』, 2001.  
국립중앙박물관, 『고대불교조각대전』, 2015.

東潮·田中俊明 著, 박천수·이근우 옮김,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2006.  
安輝濬, 『한국 고분벽화 연구』, 사회평론, 2013.  
李泰浩·유홍준, 『高句麗古墳壁畫』, 풀빛, 1995.  
李炳鎬,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사회평론, 2014.  
全虎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_\_\_\_\_, 『古代 中國의 西王母像』,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塚本善隆, 『中國佛教通史』, 東京:春秋社, 197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鎌田武雄, 『中國佛教史』, 東京:岩波書店, 1978.  
關野貞, 『朝鮮の建築と藝術』, 東京:岩波書店, 1941.



- 梅原末治・藤田亮策,『朝鮮古文化綜鑑』4, 養德社, 1947.
- 上原和,『人間の美術3 佛教の幻惑 飛鳥・白鳳時代』, 東京: 學習研究社, 2003.
- 小泉顯夫,『朝鮮古代遺跡の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東京: 六興出版, 1986.
- 松原三郎,『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1, 吉川弘文館, 1995.
- 劉志遠・劉廷璧,『成都萬佛寺石刻藝術』, 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8.
- 李域錚 編著,『陝西古代石刻藝術』, 三秦出版社, 1995.
- 李正曉,『中國早期佛教造像研究』, 文物出版社, 2005.
- 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 編,『天水麥積山』, 北京: 文物出版社, 1998.
- 村田靖子,『小金銅佛の魅力—中國 韓半島 日本—』, 東京: 里文出版, 2004.
- 岡田健・石松日奈子,「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 上・下」,『美術研究』356・357, 1993.
- 谷豐信,「平壤土城里發見の高句麗瓦當について」,『東洋文化研究所紀要』112, 1990.
- 霍巍,「四川大學博物館所藏の 兩尊南朝石刻造像」,『文物』10, 2001.
- 關野貞,「高句麗の平壤城と長安城について」,『史學雜誌』, 1928.
- 久野健,「平壤博物館の佛像」,『MUSEUM』490, 1992.
- 吉井秀夫,「日本 西日本地域 博物館에 소장된 高句麗遺物」,『高句麗研究』12, 2001.
- 吉村怜,「南北朝佛像樣式史論」,『國華』1066, 1983.
- 金理那,「高句麗 佛教彫刻樣式の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1996.
- 金相鉉,「中國文獻所載 高句麗 佛教史 記錄의 檢討」,『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2005.
- 金善子,「도상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漢代 畫像石—西王母 圖像을 중심으로—」,『中國語文學論集』21, 2002.
- 金元龍,「연가칠년명금동여래상명문」,『考古美術』10, 1964.
- 김진순,「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美術史學研究』258, 2008.
- 大西修也,「釋迦文佛資料考」,『佛教藝術』187, 1989.
- ,「飛鳥前期の小金銅佛と朝鮮三國期の造像」,『法隆寺獻納宝物金銅仏Ⅰ』, 東京國立博物館, 1996.
- 稻本泰生,「南京棲霞寺石窟試論—五世紀末~6世紀初頭の建康造像の位置づけをめぐる—」,『佛教學研究』39-2, 1997.
- 文明大,「元五里寺址 塑造像의 研究」,『考古美術』150, 1981.
- ,「長川1號墓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先史와 古代』1, 1991.
- 朴雅林,「고구려 벽화의 장식문양과 錦帳의 表現」,『고구려발해연구』43, 2012.
- 山名伸生,「土浴渾と成都の佛像」,『佛教藝術』218, 1995.
- 石松日奈子,「陝西省耀縣藥王山博物館所藏 魏文朗造像碑の年代について—北魏始光元年銘の再検討—」,『佛教藝術』240, 1998.
-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整理簡報」,『文物』11, 1998.
- 宿白,「南朝龕像遺蹟初探」,『考古學報』4期, 1989.

- 宿白,『中國石窟寺研究』,北京,文物出版社,1996.
- 申東河,「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韓國史論』19,1988.
- 辛鍾遠,「6세기 新羅佛敎의 南朝的 性格」,『新羅初期佛敎史研究』,民族社,1992.
- 安啓賢,「高句麗佛敎의 展開」,『韓國思想』7,1964.
- 岩井共二,「中國南北朝時代における裳懸座の展開」,『佛敎藝術』212,1994.
- 梁銀景,「북한의 불교사원지 출토 고구려, 발해 불상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高句麗渤海研究』31,2008.
- \_\_\_\_\_,「高句麗 塑造佛像과 中國 塑造佛像과의 關係」,『東北亞歷史論叢』24,2009.
- \_\_\_\_\_,「南朝 塑造像 研究」,『百濟研究』58,2013.
- 楊曉春,「从《金石录》的一则题跋推测甘肃涇川王母宮石窟的开凿者与开凿时代」,『敦煌研究』1,2008.
- 袁曙光,「四川茂汶南齊永明造像碑及有關問題」,『文物』2,1992.
- 李炳鎬,「扶餘 定林寺址出土 塑造像의 製作技法과 奉安場所」,『美術資料』72·73,2005.
- \_\_\_\_\_,「扶餘 陵山里寺址 출토 瓦當의 再檢討」,『韓國古代史研究』51,2008.
- \_\_\_\_\_,「百濟泗泚時期塑像의 展開過程」,『奈良美術研究』10,2013.
- 李容振,「漢代의 西王母 圖像」,『東岳美術史學』6,2005.
- 이재중,「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국미술수용」,『한국고대사연구』32,2004.
- 임기환,「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한국사연구』137,2007.
- 林碩奎,「渤海 半拉城出土 二佛并坐像의 研究」,『佛敎美術研究』2,1996.
- \_\_\_\_\_,「東京大 博物館 所藏 渤海佛像」,『高句麗研究』6,1998.
- \_\_\_\_\_,「渤海 塑造佛像의 性格과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北方史論叢』7,2005.
- 林玲愛,「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중국의 西王母신앙 : 씨름그림에 나타난 ‘西域人」,『講座美術史』10,1998.
- 林蔚,「棲霞山千佛岩區南朝石窟의 分期研究」,『燕京學報』(新 19),2005.
- 張寶璽,「甘肅涇川王母宮石窟調查報告」,『考古』7,1984.
- 張肖馬·雷玉華,「成都市商業街南朝石刻造像」,『文物』10,2001.
- 田中俊明,「고구려 사원의 조사와 현상」,『天台學研究』9,2006.
- 田村晃一,「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靑山史學』8,1984.
- \_\_\_\_\_,「高句麗의 寺院址에 關する 若干의 考察」,『佐久間重男博士退休記念中國史陶磁史論集』,1983.
- 전호태,「고구려 감신총벽화의 서왕모」,『한국고대사연구』11,1997.
- \_\_\_\_\_,「한 화상식의 서왕모」,『美術資料』59,1997.
- 鄭炳模,「高句麗古墳壁畫의 裝飾文樣圖에 對한 考察」,『講座美術史』10,1998.
- 조지현,「平壤 土城里 출토 高句麗 古式 輻線蓮華文 와당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3.
- 주홍규,「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先史와 古代』41,2014.
- 陳悅新,「棲霞山石窟南朝佛衣類型」,『華夏考古』2期,2010.

- 崔聖銀,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북위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불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 \_\_\_\_\_, 「渤海 佛教彫刻의 새로운 考察 - 中國, 日本 고대조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高句麗研究』 26, 2007.
- \_\_\_\_\_, 「프리어미술관 삼국시대 금동광배에 대한 고찰」, 『CHINA연구』 12, 2012.
- \_\_\_\_\_,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 『百濟文化』 49, 2013.
- 黃壽永, 「國寶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 1, 1964.
- James M. Plumer, 「China's Ancient Cave Temples, Early Buddhist Sculpture in the North West」, *The China Journal*, Vol. XXII, No. 3, 1935.



## 平壤 土城里출토 陶製佛像範과 高句麗 佛教彫刻

최성은

평양 土城里 일대는 평양천도(427년) 이전으로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古式의 輻線蓮華紋 瓦當의 산포지로 여기에서 출토된 3점의 도제 불상범은 소조불상을 제작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서 몸체 일부만 남아있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나 고구려 여래좌상의 귀한 예일 뿐 아니라 고구려 불교초기의 여래좌상 도상과 양식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평양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상범 1점은 평안남도 덕산면의 원오리사지에서 출토한 소조여래좌상과 同範으로 두 손을 마주 포개어 배에 붙인 초기 禪定印의 수인을 결하고 그 아래로는 일정한 간격의 세로[縱] 주름이 좌우 대칭으로 새겨진 옷자락이 單瓣의 연화대좌 위로 늘어진 형식이다. 이러한 여래좌상 형식은 중국에서는 북위시대 5세기부터 중국 陝西, 甘肅지역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북중국의 불상양식이 고구려 불교조각에 영향을 미친 이른 예로 이해된다. 또한 단정한 자세와 단순한 옷주름 표현, 여성적인 외모 등은 漢代 이래 성행했던 西王母像의 이미지와도 상통하여 중국 남북조 불교조각에서 나타나는 도교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데, 낙랑시기부터 평양지역에 퍼져있던 서왕모 신앙이 고구려 불교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다른 2점은 초기 선정인의 수인은 앞의 1점과 동일하지만 옷주름의 형태는 복잡하고 대좌의 절반가량을 치마[裙]로 덮은 裳懸座가 표현되었다. 이 상에서 상현좌 옷주름은 중앙과 좌우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표현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상현좌 표현은 중국 南朝 불상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南齊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찍이 5세기 무렵에 고구려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형태의 상현좌 옷주름이 남제의 다음 왕조인 梁代에 이르러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고구려에서는 古式의 표현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고구려 불교조각을 계승한 발해의 초기조각에까지 그 잔재를 보이고 있다.

토성리에서 출토한 두 종류의 불상범 양식은 고구려 초기 불교조각의 형성에 북조와 남조 양쪽 불교조각의 영향을 모두 말해준다. 또한 남북조 불교조각에서 영향 받은 이들 양식은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傳 黃州출토 석조여래좌상(所在不明)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또 다른 형식으로도 나타났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토성리 불상범을 통해서 南朝에 있었을 古式의 선정인 상현좌 여래좌상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고구려, 평양 토성리, 불상범, 원오리 소조불상, 남북조불상, 북위, 남제, 상현좌

## Moulds for Clay Buddha Images from Toseong-ri at Pyongyang and Goguryeo Buddhist Sculpture

Choe Songeun\*

This paper investigates three fragments of the ceramic mould for two clay Buddha images from the Goguryeo(高句麗) period that were unearthed from a temple-site at Toseong-ri(土城里) in Pyongyang. The fragments, two of which belong to the collection at Seoul National Museum and the other to the collection at Pyongyang Central Museum of History, show the early stages of Goguryeo Buddhist sculptures. It is presumed that there were Buddhist temples built in the Toseong-ri territory around the time when Buddhism was first adopted by Goguryeo. Archaeological research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s revealed that roof tiles with double-lined lotus patterns(輻線蓮華紋瓦當) unearthed at Toseong-ri, quite similar in their shape and making technique to those discovered at Guknaeseong(國內城) in Jiahn(輯安), are dated to the late fourth and early fifth century before the Goguryeo dynasty transferred its capital to Pyongyang in 427 CE.

The mould acquired by the Pyongyang Central Museum is identical in size and sculptural detail to the clay Buddha images that were excavated at Wono-ri(元五里) temple-site near Pyongyang, now in the collection at Seoul National Museum and other museums in Japan and North Korea. Buddha is shown as seated in a meditative posture with his two hands put together, palm to palm upon his abdomen, which is a typical posture seen in the images of the seated Buddha from the fourth and fifth century China. Below his hands, there are carvings of several vertical drapery folds in equal intervals. The drapery folds, together with the hand gesture, appear in several Northern Wei(北魏) Buddha images from the fifth century, especially from the Shanxi(陝西) and Kansu(甘肅) territories. The posture and the woman-like appearance of Buddha seen in this image are reminiscent of Chinese Xiwangwu(西王母) images of the Later Han and Six Dynasties. It can be

---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umed that the cult of Xiwangwu prevailed under the Lolang(樂浪) Commandery of Han China in Pyongyang until it was seized by Goguryeo in 313 CE.. The remnants of the cult may have had a strong impact on the Goguryeo culture of Pyongyang, testified by the Xiwangwu painting of Gamsinchong(龕神塚), the Goguryeo mural tomb of the early fifth century.

The two pieces from the Seoul National Museum are fragments of the same mould for the seated Buddha image that now only shows his robe drapery covering the pedestal. Although the face and upper body parts are missing, the plaster cast of these fragments shows a unique rendering of drapery folds that are shown as divided into three equal parts. The folds compare closely to those in the Buddha images from the late fifth century Southern Chi(南齊) of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which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Southern Dynasties on the Goguryeo Buddhist sculptures in their early stages. During the Southern Dynasty of China, the methods for representing drapery folds changed from carving them in three parts to rendering them more naturally. However in the Toseong-ri of Goguryeo, the old traditional way of carving drapery was continued in the sixth century Buddha images and in the early sculptures of the Balhae perio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se two types of iconography shown in the Toseong-ri moulds also show traces of another type of the Buddha image, shown in the now missing Buddha image reportedly from Hwangju.

The three fragments that make up the mould of the Buddha image from Toseong-ri identify with both the Buddhist sculptures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exhibiting their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the first stage of Goguryeo Buddhist sculptures. Furthermore, the moulds from Toseong-ri trace to an early prototype of the seated Buddha image from the Southern dynasty in which Buddha is in a meditative posture with his hands put together palm to palm on his belly and his skirt carved in three parts covering the pedestal.

key words: Goguryeo, Pyongyang Toseong-ri, Mould for Buddha Image, Wono-ri,

Buddhist Sculpture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 China, Southern Qi